

힝클리 대관장의 최근 활동



힝클리 대관장이 교회 교육 기구 노변의 모임에서 말씀하고 있다.
솔트레이크 시티의 컨퍼런스 센터로부터 방영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2001년 8월과 9월 사이에 교회 교육 기구 노변의 모임 방송 프로그램에서부터 국제 사회 봉사 조직 총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모임에서 말씀했다.

그는 또한 솔트레이크시티의 복지 광장에 새롭게 단장된 시설들을 헌납하고, 유타가 준주일 당시 수도의 1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유타 주 필모어를 방문했다.

청년들과 시민들에게 한 연설

힝클리 대관장은 9월 노변의 모임에 참석한 젊은이들에게 충실하고 낙천적이 되라고 격려했다.

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적인 사고의 경향에서 고개를 돌

려, 동료들이 가진 훌륭한 미덕들을 발견하고, 서로의 결점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장점에 대해 이야기하며, 부정적인 생각 대신 긍정적인 생각을 ... 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 간구하며 신앙과 기도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계시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발전과 위대한 목적이 있는 행로에서, 여러분의 발자국결에 눈에 잘 띄지 않는 세심한 인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9월 23일 열린 국제 시/군 경영자 협회 총회 개최식에서 힝클리 대관장은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가정의 결함으로부터 야기된다고 말했다.

“여러분 모두 이런 문제들, 즉 범죄, 외설물, 마약, 사생아, 그 밖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병폐들을



사진 촬영: 로리 셀츠, 차지 뉴스 제공

대관장단과 감리 감독단, 칠십인 회장단,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을 포함하여 여러 교회 지도자들이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복지 광장 헌납식에 참석했다.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면,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 예전의 성스러운 가치관들로 복귀해야 한다면, 그 모든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 한 사회의 건강과 시민들의 행복, 그리고 그들의 번영과 평화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주는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가족과 사회를 강화시킬 수 있는 열 가지 실천 사항을 설명했다.

- (1) 부모로서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자녀들에 대한 의무를 다한다.
- (2) 결혼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
- (3) 아버지를 가장의 위치에 복귀시킨다.
- (4)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
- (5) 자녀들을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대하고 존중한다.
- (6) 자녀들을 사랑으로 훈육하고 훈련한다.
- (7) 자녀들에게 가치관을 가르친다.
- (8) 자녀들에게 일하도록 가르친다.
- (9) 자녀들에게 책을 읽어 주고 자녀들과 함께 책을 읽는다.
- (10) 자녀들과 함께 기도한다.

지난 8월에 힝클리 대관장은 세계의 외딴 지역에 소아마비 백신을 보급하기 위한 국제 로터리 클럽의 활동에 미화 100,000 달러 상당의 기부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었다.

힝클리 대관장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재단을 대표하여 기부금을 약속했다. 국제 로터리 클럽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봉사 조직의 하나로서 전 세계에 30,000개의 지부를 갖고 있다.

힝클리 대관장은 8월 31일에 템플 스퀘어 태버나클에서 열린 국제 로터리 클럽 총회에서 연설을 했다. 그는 국제 로터리 클럽이 전개하고 있는 소아마비 추방을 위한 노력을 치하하고 “이 무서운 질병이 뿌리 뽑힐 때까지 그 노력을 멈추지 않길 바라며, 이 무서운 질병의 뿌리를 뽑게 된다면, 그것은 위대한 기적의 성취이자 인류의 가족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 광장 헌납

9월 5일에 힝클리 대관장은 솔트레이크 시티 중심가 남서쪽의 최근 건축되었거나 개축된 복지 광장 시설들을 헌납했다. 대관

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감리 감독단,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및 임원들이 헌납식에 참여했으며 종교계 및 시 지도자들도 함께 자리했다.

새로 건축되거나 개축된 시설들로는 2,045 평방미터의 통조림 공장, 4,645 평방미터의 우유 가공소, 새로운 제과점, 개축된 직업 고용 알선 센터 및 데저렛 인더스트리 중고품 할인 판매점 등이 있다. 복지 광장의 생산품들은 전세계의 공평한 회원 및 비회원들에게 공급된다.

헌납 기도에서 힝클리 대관장은 복지 광장이 “자연의 번덕과 인간의 인간에 대한 잔혹 행위”로 상처 받은 사람들의 삶을 축복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구했다.

말씀하는 동안, 힝클리 대관장은 “이보다 더 큰 사업은 없다”고 말했으며 복지 광장은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주님의 계명을” 실행하도록 도와주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일함으로써 자신이 받은 것만큼 갚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관장단 제1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도 이 모임에서 메시지를 전했다. 몬슨 부대관장은 그의 생애 동안 사람들이 복지 광장을 통해 축복 받는 모습을 본 것에 대해 말했다.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복지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복음의 정수”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감독,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메리 앨런 더블류스무트 자매, 솔트레이크시티 내에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조지 에이치 니에더로 주교 등이 헌납식의 연사로 참석했다.

최초의 복지 광장은 1938년에 대공황

시절에 발생한 수천 명의 실직자들을 돕기 위한 노력의 일부로 건설되기 시작했다. 오랜 세월을 걸쳐 복지 광장의 시설들은 변화하는 새로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체되거나 개축되었다. 1941년에 완성된 대형 곡물 창고가 현재 상존하며 사용되고 있는 유일한 원래의 구조물이다.



사진 촬영: 스톡트 로이드, 사진 뉴스 제권

힅클리 대관장이 한 때 그의 조부 이라 나다니엘 힅클리가 소유했던, 유타 필모어의 집 부근에서 있다.

150주년 기념

브리감 영 대관장이 남 중앙 유타의 한 지역을 당시 “데저렛 주”로 불린 준주의 주도로 지정한 지 백 오십 년이 지난 2001년 9월 8일, 힅클리 대관장은 유타 주 필모어의 150주년 기념식을 지켜보는 지역 주민들과 방문자들에게 말씀했다.

주도로서의 필모어의 수명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일 년 후 주도는 편의상의 문제로 다시 솔트레이크시티로 바뀌었다.

힅클리 대관장은 이 도시에 거주했던 자신의 조상에 대해 언급하며 회중에게 “필모어에 다시 오니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그의 할아버지 이라 나다니엘 힅클리

는 필모어에 살면서 밀라드 스테이크의 스테이크장으로 25년 동안 봉사했다. 기념식이 시작되기 전 힅클리 대관장은 잠시 시간을 내어, 기념식이 열린 옛 주 의 사당의 길 건너편에 위치한, 그의 조부가 살던 집을 방문했다. “오늘 오후 솔트레이크 공항을 출발해서 필모어의 활주로에 내리는 데까지는 23분이 걸렸습니다. 브리감 영과 히버 시 김볼과 다른 분들이 1851년에 이곳에 오기까지 겪어야 했던 어려운 일들과 비교해 볼 때, 커다란 감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힅클리 대관장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

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경축하는 이 150주년 기념일에, 오래 전 이곳에 살았던 분들을 기억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 곳은 강인한 인격과 높은 가치관을 지녔고 주요한 업적을 남긴 분들의 자손이 대대로 살아온 곳입니다. 필모어와 밀라드 카운티의 개척자였던 훌륭한 부모님들 덕분에 그들의 마음에는 위대한 신앙이 심어졌습니다. 이 지역에서 자라날 미래의 세대들이 그들의 고귀한 조상만큼 강인하기를 바랍니다. 150년 전에 이곳에 살았던 개척자들이 밝힌 신앙과 업적의 햇빛을 그들이 높이 치켜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척자 예언자, 그의 신앙의 힘으로 굳건히 서다,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사라 제인 위버

2001년 8월 21일, 대관장단 제2보좌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브리감 영의 확고한 신앙이야말로 그가 위대한 지도자요 식민지 개척자로 성공할 수 있었던 주요 이유라고 말했다.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학교의 연례 캠퍼스 교육 주간 영적인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브

리감 영 대학교 매리웃 센터에 모인 수천 명의 교회 회원들에게 말씀하면서 브리감 영에게 “대담한 예언자”라는 찬사를 보냈다.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앙이 있었기에, 그는 교회를 일으키고 왕국을 성장시키는 일에서 뿐만 아니라 예언자와 지도자로서의 [영 대관장] 자신의

역할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제2대 대관장의 출생 200주년을 기리는 교육 주간의 테마였던 “브리감 영: 신앙과 봉사의 모범”에 관해 연설했다.

8월 20~24일까지 BYU 캠퍼스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1000명 이상의 연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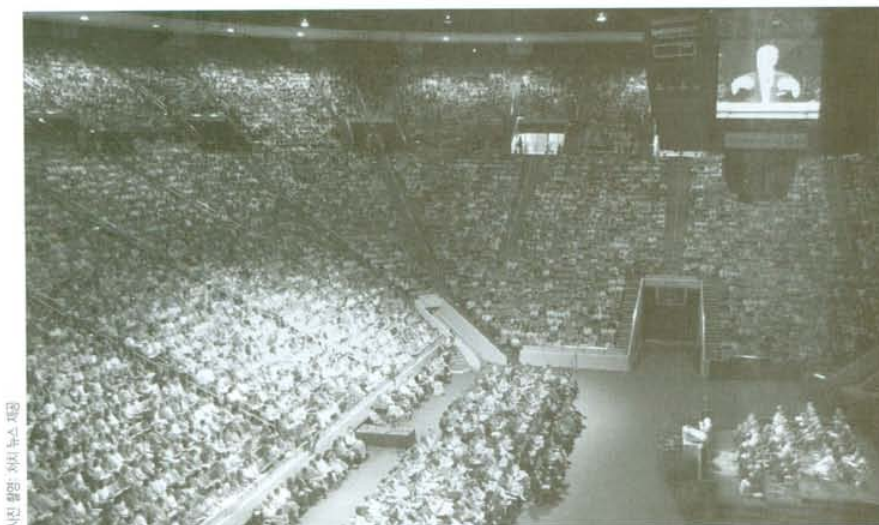


사진: 제임스 E. 파우스트

수천 명의 캠퍼스 교육 주간 참석자들이 BYU 매리웃 센터에 모여서 제임스 E. 파우스트 부대관장의 연설을 듣고 있다.

교육 주간의 테마를 비롯하여 자기 향상, 가족 관계, 종교 교육, 역사, 과학, 청소년 관심사 및 문학 등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연설했다.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브리감 영 대관장이 갖고 있던 절대적인 자신감과 자신의 판단력에 대한 완전한 확신의 원천에 연설의 초점을 맞추었다고 말했다.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브리감 영이 내적인 힘과 영적인 은사에 의지했다고 분명하게 설명했다.

“6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북미의 광야를 가로질러 마차와 손수레로 서부 분지까지 모두 이주하게 할 생각을 한 그의 대담함과 용기를 달리 설명할 수 없습니다.”

브리감 영은 성도들의 서부로의 여행이 주님의 명이라고 믿었다.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이렇게 말했다. “그렇기에 그들은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험이 많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일은 근면함과 희생, 고난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힘만으로 이 일을 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브리감 영이 자신의 지도력에 결점이 없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말했다. “그가 가졌던 확신은 자신이 어떤 실수도 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자신이 항상 최선의 방책을 안다는 확신이 아니라 결국 가장 중요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는 효과가 없는 일들은 빨리 멈추고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궁극적인 방향과 목적은 변하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계시에 기초를 둔 장기적인 목표는 나날이 그가 내려야 할 결정들에 균형있는 일관성을 제공했고 난관이나 심지어 실수에도 개의치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브리감 영은 신앙과 일 모두에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인간은 자신의 기술과 노력과 힘을 다 사용해야 하고 그 후에도 충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브리감 영의 위대한 예언자적 지도력에 대한 간증을 덧붙이고 브리감 영의 마지막 특성으로 꼽은 충성심에 대해 존경을 표하고 연설을 마쳤다. “교회의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이 떨어

져 나갔는데 그 이유는 요셉 스미스를 주님께서 기름 부은 자로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브리감 영은 요셉의 이름을 부르며 숨졌습니다. 그는 요셉과 요셉이 한 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요셉 스미스의 이름을 존경하고 경외한다. 그 이름을 듣는 것이 기쁜 이유는 그 이름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복원된 팔마이라 농장 헌납

손 디 스테일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새로운 헛간과 담장, 복원된 목조 주택을 비롯한 뉴욕 팔마이라 부근의 역사적 장소들이 우리가 루시 맥 스미스와 요셉 스미스 일세가 농장에서 가족을 부양했던 시절에 대해 알고 있는 모습과 가장 가깝게 복원되었다고 2001년 9월 9일 열린 헌납식에서 말했다.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스미스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면서, 이곳을 복원하려는 노력이 완성된 것을 기뻐하리라 확신합니다.”

약 200명의 회원들과 선교사, 사회 지도자들이 새로 복구된 목조 주택과 새로 건축된 헛간 사이에 서서, 하이람 스미스의 4대손인 벨라드 장로가 새로 지어지거나 복구한 시설들을 헌납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1,000여 명은 주변 지역의 집회소에 모여서 이 헌납식을 시청했다.

헌납 기도를 하기 전에 벨라드 장로와 다른 연사들은 복음의 회복에서 중심이 되었던 그들의 가족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벨라드 장로와 부인 바바라 벨라드 자매는 북미 북동부 지역 회장을 맡고 있는

칠십인 정원회의 더블루 크레이그 즈위크 장로와 부인 켄 즈위크 자매와 함께 모임에 참석했다.

스미스가 살았던 당시의 모습대로 이곳을 복원하기 위해 교회는 수년간 조사와 건축을 거듭했고, 마침내 팔마이라의 시설들을 헌납하게 되었다.

먼저 복원된 건물들에는 스미스 가족이 농장을 만들기 위해 땅을 개간했을 당시 거주했던 통나무 집 등이 있다. 이 집은 어린 요셉이 성스러운 숲에 들어갔을 당시 살았던 집이다.

복원된 통나무 집은 고든 비 힙클리 대관장이 1988년에 헌납했다. 그 이후 이 역사적 장소에서는 알빈 스미스가 최초로 짓기 시작했던 목조 주택이 복원되었고, 통 제조 가게가 건축되었으며, 성스러운 숲으로 통하는 길과 36그루의 사과 나무가 있는 과수원을 만드는 등 중요한 진전 사항들이 있었다.

현재 팔마이라 부근에서는 새로운 방문자 센터 건축을 위한 기공식이 있었고 성전에 인접한 새로운 스테이크 센터가 건축되고 있다.

기사 출처: 처치 뉴스, 2001년 10월 6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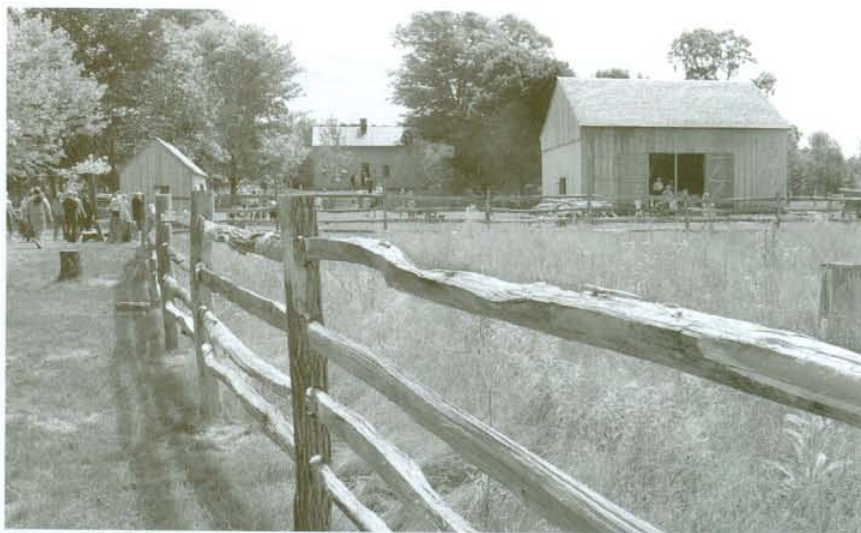


사진 촬영: 톰 스티븐, 처치 뉴스 제공

뉴욕 팔마이라 근처에 있는 스미스가의 농장, 현재 모습

개척자 묘지, 새로이 단장

알 스코트 로이드

2001년 9월 22일,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새로이 단장된, 솔트레이크 계곡에서 숨진 제1세대 말일성도 33명(이들 중 24명이 어린이였다)이 묻혀 있는 한 묘지를 헌납했다.

지금의 솔트레이크시티 중심가에 매장되어 있던 이 유골들은 개척자들이 건설한 요새 지역이었던 개척자 공원 부근에서 건축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발굴되었다. 유골들은 1986년에 This Is the Place 유산 공원에 안치되었으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던 상태였다.

헌납 기도를 드리기 전에 한 말씀에서, 벨라드 장로는 1996년에 This Is the

Place 재단 이사장인 스티븐 에이 스투더트와 함께 이곳에 왔을 당시 묘지에는 잡초가 무성했다고 말했다.

“제가 스티븐 스투더트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이들이 부활 때에 잡초 덩불을 뒤집어 쓰고 나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현재 캘리포니아 칼스배드 선교부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스투더트 형제는 이어서 유타 오렘 섀넌 하이즈 스테이크장인 로널드 케이 호킨스에게 스테이크 봉사 활동으로서 묘지의 미화 작업을 부탁했다.

현재 개척자 어린이들의 기념 묘지에는 미관 향상과 부식 방지를 위해 나무 껍질들이 성글게 뿌려졌고, 슬레이트 산책길, 자연 관목과 꽃, 나무, 개척자 시대의 전형적인 장식용 담 등으로 아름답게 꾸며졌다.

세 성전 탑을 장식한 천사 모로나이 상

천사 모로나이의 요셉 스미스 첫번째 방문 178번째 기념일인 2001년 9월 21일, 천사 모로나이 상들이 세 개의 성전 첨탑 위에 세워졌다. 일리노이 나부 성전과 매사추세츠의 보스턴,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모인 회중들은 인부들이, 금도금을 한

2.08미터의 모로나이상을 설치하는 모습들을 지켜보았다.

천사 모로나이 상이 나부 성전 돔 위에 놓여질 때는 500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환호를 보냈다. 나부 성전은 윈



천사 모로나이 상이 일리노이 나부 성전 탑 위에 올려졌다.

사진 촬영: 코라 할



위: 매사추세츠 보스턴 성전에 탐탐과 모로나이 상이 세워졌다. 오른쪽: 천사 모로나이상이 네덜란드 헤이그 성전 탐으로 들어 올리지기 전에 다섯 명의 유럽 지역 스테이크장들은 모로나이산 옆에서 포즈를 취했다.

래의 건축물과 매우 유사하게 건축되고 있지만, 새로운 성전에는 원래 성전에 있었던, 날아가는 모습의 모로나이가 아니라 현대의 다른 성전들과 마찬가지로 서 있는 모로나이 상이 설치되었다. 나부 성전은 요셉 스미스와 하이람 스미스의 순교 158주년인 2002년 6월 27일에 헌납될 예정이다. 2002년 5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성전 공

개 모임은 일요일과 월요일을 제외하고 5주 동안 계속된다. 모로나이 상이 세워짐으로써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보스턴 성전 침탑 작업은 마침내 완료되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침탑 건축에 반대하여 제기한 법적 소송이 해결되면서 이루어진 일이다. 보스턴 성전은 2001년 10월 1일에 침탑 없이 헌납되었다. 헤이그 성전에서는 지역 교회

지도자들과 건축 회사 책임자가 300명이 넘는 회중들에게 말씀을 했고 그 후에 회중들은, 네덜란드 전통 의상을 입고 나무 신발을 신은 건축업자들이 발판을 딛고 올라가 모로나이 상을 제자리에 설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헤이그 성전은 “달콤한 호수”라는 뜻을 가진 조에티미어에 위치해 있으며 올 여름에 완공될 예정이다.

그들의 눈에서 희망을 봅니다

스쿠트 피 트로터

북미 북동부 지역 회장인 더블류 크레이그 이그 스위크 장로는 지난 몇 주 간 맨해튼의 회원과 선교사들을 방문하여 2001년 9월 11일, 미국에 있었던 공격 이후에 대관장단이 표한 사랑과 관심을 전했다.

즈위크 장로는 많은 회원 및 전임 선교사들과 모임을 가진 후 이렇게 말했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뉴욕 지역에 사는 회원들의 신앙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어느 때보다도 충실하고 강합니다. 회원들 간에는 단합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들은 앞을 바라보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의아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즈위크 장로는 앨버트와 진 우드하우스 부부의 집 거실에서 대화를 나눴다. 무너진 세계 무역 센터에서 북쪽으로 네 구역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이들 부부는 오랫동안 맨해튼에서 살아왔고 뉴욕 스테이크 맨해튼

제5와드에 다니고 있다. 우드하우스 형제는 즈위크 장로에게 이같이 말했다. “교회 회원들이 우리에게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같은 염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실로 많은 사랑이 쏟아졌습니다. 일들은 잘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독님은 훌륭하게 대처하였으며 회원들은 이곳에서 안전을 느낍니다. 우리는 교회 조직에 대해 매우 감사합니다.”

기사 발췌: 처치 뉴스 2001년 9월 29일자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사라 제인 워버

뉴욕 시의 세계 무역 센터 테러 사건 이후 뉴욕 북선교부 선교사들은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다. 그들은 교회 회원들과 구도자들을 방문하며 염려와 격려를 모두 전하고 있다. 그들은 희생자들을 위해 그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구원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들은 2001년 9월 11일 사건으로 인해 마음이 부드러워진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굳어진 사람들을 보기도 한다.

노엘 지 스토크 선교부장은 모든 선교사들이 주님께서 그들을 이곳에 보내셔서 위기의 시간에 뉴욕 사람들을 돕게 하신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시기에 이곳에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캘리포니아 헌팅턴 비치 출신의 조셉 알

세이머 장로와 유타 머레이에서 온 세스 필 모어 장로는 비행기가 두 건물 중 한 건물에 충돌했을 당시, 지하철을 타고 세계 무역 센터 밑을 지나고 있었다. 첫 번째 건물이 붕괴된 직후 그들은 먼저 구름에 휩싸였다. 손수건으로 얼굴을 덮고 항구쪽으로 뛰어가던 이들은 곧, 아이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고 가는 어머니들에게 손수건을 건네주었다.

세이머 장로는 이 위기의 시간 내내 그들을 지탱해 준 바로 그 메시지를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한다.

어떤 선교사들은 적십자사와 함께 일하면서 자원 봉사자들을 조직하는 일을 도왔다.

스토크 부장은 선교사들과, 특히 세계 무역 센터에서 근무하는 회원들이 경험한 수많은 신앙의 이야기를 듣고 보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최근 인터넷 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테러가 있던 날 아침 무역 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다는 선교사 대회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꾸며진 이야기는 모든 선교사들이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선교사 대회에 기적적으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전하고 있다. 스토크 부장은 9월 11일에는 어떤 대회도 계획되어 있지 않았으며, 대회가 열린다고 해도 세계 무역 센터에서 열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야기는 매우 해로운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는 확실한 신앙의 이야기를 해치려는 악의가 담긴 이야기입니다.”

기사 발췌: 처치 뉴스 2001년 9월 29일자

U.S. News & World Report 연례 조사, BYU-하와이 4위 기록

최근 U.S. News & World Report지가 실시한 “미국의 명문 학교”라는 제목의 연례 조사에서 브리감 영 대학교-하와이는 서부 지역의, 대학원 과정이 없는 종합 대학 부문에서 4위를 기록했다. 학문적 평가에서도 BYU-하와이는 서부 지역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

2002년 2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다음은 초등학교 지도자들이 리아호나 2월호에 나와 있는 함께 나누는 시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충 자료이다. 이러한 제언에 해당되는 공과와 유의 사항과 활동을 원하면 리아호나 2002년 2월호 친구들란의 4쪽과 5쪽에 나와있는 “영원히 함께”를 참조한다.

1. 각각의 종이에 가족이라는 단어의 철자를 쓴다. (각각의 종이에 단어를 하나씩 써서 “가족은 영원히 함께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 수도 있다.)

초등학교가 시작되기 전에 각 낱말 카드를 의자 밑에 테이프로 붙인다. 어린이들에게 카드를 찾아보라고 한다. 카드를 찾은 어린이들은 앞으로 나와서 카드를 들고 있다고 한다.

나머지 어린이들로 하여금 앞에 나와 있는 어린이들에게 “다영아, 선하와 진하 사이에서 주겠니?”와 같은 지시를 하여 문장이 나 단어가 순서대로 배열될 수 있게 한다.

카드를 들고 있는 어린이들에게는 지시를 주는 사람이 “~해 주겠니?”와 같이 공손한 말을 사용해야만 움직이라고 말해 준다.

우리는 서로에게 말하는 방식은 서로에게 친절을 보일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친절이나 사랑을 보이는 것에 관한 어린이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우리의 가족과 친구에게 친절히 대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한다.

집 그림 한 장을 만들되, 집의 일부, 즉 문



이나 창문, 지붕, 굴뚝 등을 그려 넣지 않는다. 여러 장의 종이에 빠진 부분을 각각 그려 넣는다. 각 종이의 뒷면에 상황을 설명한다.

예) (1) 한 소녀가 여러분의 반으로 전학을 왔다. 그 소녀는 혼자 앉아 있다. (2) 여러분이 기르는 개가 옆집 마당의 꽃밭을 망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 (3) 시험을 보는 동안 여러분의 친구 한 명이 답을 가르쳐 달라고 속삭인다.

집의 구성 요소 중 더 큰 부분에는 더 어려운 상황들을 적는다. 각 반에게 집을 완성시킬 수 있는 한 부분을 고르게 한다. 뒷면에 적힌 상황을 읽고 그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토론하게 한다.

각 반의 대표 한 사람이 전체 초등학교 어린이에게 그 상황을 읽어 주고 반원들이 생각해 낸 답을 말하게 한 뒤, 그 부분을 집 그림에 붙이게 한다.

가능하면, 미완성인 집 그림을 어린이 모두에게 한 장씩 나누어 준다. 한 주 동안 가족 중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이나 행동을 할 때마다 집에서 빠져 있는 부분을 그려 넣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2. 어린이들에게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리아호나, 1998년 10월호, 24쪽 참조)의 복사본이나 “남편과 아내는 ... 엄숙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로 시작하는 여섯 번째 문단의 복사본을 한 장씩 나누어 준다. 그 구절을 소리 내어 읽는다.

어린이들에게 여섯 번째 문단에서 ‘돌보[다], 자녀들, 의무, 아버지, 남편, 사랑, 어머니, 필요한 사항, 부모, 책임, 봉사, 가르치다, 아내와 같은 단어를 찾고 표시하게 한다.

부모가 자녀들의 양육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토론한다. 그들을 보호하고, 물질적인 필요 사항, 영적인 필요 사항을 제공하며,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도록 가르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법을 잘 준수하는 시민이 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하여 부모님들이 만드신 규칙이 무엇인지 어린이들에게 물어 본다. 칠판에 그 규칙들을 적는다.

가족의 규칙은 어린이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가족 선언문 복사본을 붙일 종이 액자 장식을 만들게 한다. 선언문을 액자에 붙인다. 어린이들에게 가족과 함께 선언문의 내용을 읽어 보도록 권한다.

3. 정의판 방패를 보여 준다.(초등학교 교재 2, III쪽) 이 방패는 무언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의 상징이라고 말한다. 어린이들에게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물어 본다.

우리는 복음 원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종종 상징과 비유를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예수님도 비유를 사용하셔서 복음 원리를 가르치셨다.

어린이들에게 마태복음 7장 24~27절을 읽게 한다. 모래밭이 아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한다.

어린이들에게 반석이 무엇을 의미하는냐고 질문한다.(힐라맨서 5:12 참조) 비와 홍수와 바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배우고 따를 때 오는 축복에 관한 이야기라고 설명한다.

교실 앞에 침례, 성찬, 성전의 침례탕, 쇠막대, 해, 달, 별 그림을 걸어 놓는다. 이 그림들이 상징하는 바를 설명하는 낱말 스트립을 만든다.

침례—무덤에 묻혔다가 다시 태어남, 성찬—몸이나 피, 침례탕을 받치고 있는 12마리의 황소—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쇠막대—하나님의 말씀, 해—해의 왕국, 달—달의 왕국, 별—별의 왕국, 낱말 스트립을 섞어서 그림 맞은편에 일렬로 놓는다.

어린이들에게 차례대로 앞으로 나와서 낱말 스트립과 맞는 그림을 짝짓게 한다. 성전에는 많은 상징들이 사용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순결을 상징하는 하얀 옷을 입는다. 인봉실의 양쪽에 있는 거울들은 모습을 끊임없이 반사하여 영상이 끝없이 계속되게 만든다. 이 영상은 영생을 상징한다.

4. 다음의 여섯 가지 그림을 준비한다.(그림들을 구할 수 없으면 종이에 그 낱말을 적는다.) 가족, 지구,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는 그림(초등학교 교재 6, 2쪽 참조), 예수님, 어린 아이, 성전. 그림을 보여 주지 말고, 핀이나 테이프로 어린이들의 등에 붙인다. 한 사람씩 순서대로 다른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게 한다.

예) 내 그림은 사람인가요? 내가 운반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런 후에 그 어린이에게 등에 붙이고 있는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알아맞히게 한다.

몇 가지 힌트를 준 후에도, 그 어린이가 무슨 그림인지 알아맞히지 못하면 그림과 관련 있는 어린이 노래나 찬송가를 불러서 음악 힌트를 준다. 어린이가 그림을 정확하게 맞히면 등에서 그림을 떼어 준다. 그 그림들을 사용하여 “가족은 영원해”(찬송가, 189쪽)를 가르친다. 영원한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간증한다.

굳건한 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지다

서울 동 스테이크



에즈라 테프트 벤슨 장로(뒷줄 왼쪽에서 세번째)와 함께한 초기 회원들. 뒷줄 왼쪽에서 두번째가 슬로버 전 한국 선교부장, 앞줄 왼쪽에서 두번째가 이우영 스테이크장이며 이우영 스테이크장의 부친 고 이인규 형제가 나란히 서 있다.

1. 스테이크 역사

서울 동 스테이크의 초기 성도들은 1965년 12월 김기춘 형제의 자택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당시 모인 성도들은 20여 명이었고, 1966년 8월부터는 이도호 자매의 자택에서 모임을 가졌다. 곧 이어 성북 지역이 조직되었으며 1973년 3월 8일 5와드로 승격했다. 1979년 4월 당시 십이사도였던 헌터 장로에 의해 서울 동 스테이크가 조직되어 고원용, 구본동(2회 역임), 김병희, 최석구 형제에 이어 이우영 스테이크장이 부름을 받아 봉사중이다.

서울 동 스테이크는 1997년 개척자 150주년 기념 행사의 하나로 '초기 성도의 서부 개척 이야기' (138쪽)를 발행했고 1998년에 '서울 동 스테이크 20년사' (154쪽)를 발행했다. 서울 동 스테이크 경계 내에는 북한산, 수락산, 도봉산, 소요산, 한탄강, 정능, 4·19 기념관 등의 명소가 있으며, 17개 대학과 34개 지하철역이 있다. 또 세계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상계동에 있어 발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스테이크는 김음 와드, 상계 와드, 도봉 와드, 동두천 지부, 장위 와드, 의정부 와드로 구성되어 있고 5명의 형제 자매가 국내외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중이다.

2. 스테이크 소개

서울 동 스테이크에는 특색있는 모임이 많다. 스테이크에 연로한

회원들이 많아 이들을 위한 모임이 빠지지 않는다. 매년 5월 5일에는 '어르신'을 위한 초대회 발표회를 하며 어린이들에게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도록 돕고 있다. 작년 10월 18일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속리산 등반을 할 때는 77세 된 강분도 자매와 68세 된 최청자 자매가 문장대까지 함께 오르기도 했다.

또한 청남들의 아론 신권 달성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간증을 키워주며 스카우트 정신을 배양하기 위해 1997년 7월 1일 보이 스카우트 서울 북부 연맹 855대 성북 지구 나부 지역대를 출범시켰다. 현재 스카우트 마스터로는 최석구 형제가 봉사하고 있으며 스테이크장단과 고등 평의원 등 20여 명도 스카우트 대장 교육을 받아 매월 첫주 토요일에 걸 스카우트 및 보이 스카우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팔당 수력 발전소, 영화 촬영장, 양주군 양산 별산대 놀이터, 송추 서바이벌장, 삼청 공원, 청와대 앞, 대성리 등지에서 활동과 야영 또는 견학을 하였다. 도봉 와드의 홍성원 형제는 보이 스카우트 활동을 통해 아론 신권 달성 프로그램의 집사 과정을 이수했다.

동 스테이크 회원들 중 35명이 현재 'HAM' (아마추어 무선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그중 26명이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1998년 한국 무선국에서 6KØF로 단체국 사용을 허가 받아 145.640 Mhz에서 매일 저녁 9~10시에 대기하고 있다. 배중호



왼쪽: 보이 스카우트 855 나부 지역대, 오른쪽: 스테이크장으로 봉사했던 최석구, 고원용, 구본동 형제(왼쪽부터)

형제가 모로나이 네트의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서울 지구 ERRS(비상 연락망 체계) 책임자로 여운성 형제가 봉사중이다.

3. 와드 소개

길음 와드는 1965년 12월에 5와드로 시작하여 현재 동 스테이크 6개 와드 지부의 모태가 되었다. 김종균 형제가 초대 지역장으로 봉사했으며, 1968년 8월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가 방문하기도 했다.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인 고원용 장로, 서희철 영동 스테이크장, 이상태 형제, 이호남 형제, 주덕영 형제, 한인상 형제 등이 길음 와드와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

또한 1974년 최동현 형제의 집에서 1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첫 예배를 보기 시작한 상계 와드는 현재 성찬식 참석 수가 120여 명에 달한다. 이 와드의 회원들은 저활동 회원들의 활동을 위하여 모든 저활동 회원에게 등기로 편지를 보내고 와드 주보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또한 와드를 3구역으로 나누어 가정의 밤을 시행하여 구도자와 새로운 회원, 저활동 회원이 우정 증진을 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지난 4개월간 12명의 저활동 회원들이 활동화되었다. 한편 상계 와드에는 와드 회원 30여 명으로 구성된 모로나이 합창단이 있다. 이 합창단은 80년에 창단하여 지금까지 18회의 정기 공연을 했다.

도봉 와드는 스테이크에서 연로한 회원을 가장 많이 모시고 있다. 예배실 의자의 앞 두 줄은 그 분들을 위한 지정석이 되었다. 모두 열 분의 어른들이 계시며 치과 의사인 박진수 감독이 그분들의 차이를 돌보아 드리고 있다. 한편 최동일 형제는 가족 기록서를 3만 매 이상 제출하여 와드 회원들에게 성전 사업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동두천역 앞에 위치한 동두천 지부는 한국 제일의 *리아호나* 구독 수를 유지하고 있다. 선교 책임자인 김홍민 형제의 준비로 매주 토요일 영어 연극, 음악 활동, 비디오 시청 및 복음 토론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동두천 지부는 토요일 영어 회화 모임을 시범적으로 3학기제로 운영하며, 곧 다른 와드에서도 적용할 계획이다. 이 와드의 황근옥 자매는 평생을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해 헌신했으며, 이러한 공로로 2001년 BYU 총장 상을 받았다. 또 배태주 형제와 배태정 자매는 1997년 개척자 150주년 어린이 미술 대회에 출품하여 입상하기도 했다. 이들의 작품은 *프렌드* 1997년 5월호와 *성도의 벗* 1998년 5월호 *어린이*란에 실렸다.

장위 와드는 현재 와드 건물을 짓고 있다. 박순철 감독의 인도 아래 와드 회원들이 단합하여 저활동이던 이삼우 자매를 20년 만에 재활동화시켰으며, 이 자매는 아들들이 침례를 받는 날 기념으로 떡을 돌리기도 했다. 현재 장위 와드에서는 자매 3명이 전임 선교사로 부름 받아 국내외에서 봉사하고 있다.

의정부 와드는 1997년 도봉 와드에서 분리되어 1998년 와드로 승격하였으며 대지 550평에 와드 건물을 짓고 있다. 이 와드의 청소년들은 새벽반 교사인 문호철 형제와 함께 매일 새벽 세미나리를 하고 있다. 김규태 감독의 가족은 *리아호나* 2001년 2월호 지역 소식의 명문 가정에 소개된 바 있으며, 초등회 김솔휘 자매는 세종의 날 기념 제23회 글짓기 대회에 입상했다.

4. 결론

이렇듯 서울 동 스테이크 내의 여섯 개 와드 지부는 각각의 특징을 살리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고, 한편으로는 단합하여 굳건한 스테이크의 기초를 다지고 있다. 앞으로 건설해 나갈 그들의 미래는 지금까지 쌓여 온 굳건한 신앙의 토대 위에서 밝게 빛날 것이다.

농아 지부 선교사들의 하루

만약 여러분이 선교 사업을 하는 도중에 이제껏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언어를 배워야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인가? 서울 선교부의 윌콕스 장로는 그러한 경험을 처음 받아들일 때의 느낌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농아 지부에서 봉사하게 된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기억이 납니다. 선교 사업을 나오기 전에는 농아 지부에서 봉사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습시다. 수화를 배우다가나 청각 장애인들과 함께 봉사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꺼이 농아 지부에 가겠다고 결심했고, 지금 무척 행복합니다.”

이곳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은 다른 지역의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구도자를 찾고 침례를 주고 회원들을 방문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다른 선교사들과 생활이 조금 다르다. 중앙 농아 지부와 인천 농아 지부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의 하루 일과를 들여다 보았다.

지하철에서 숙소에서, 연습 또 연습

2001년 12월 4일 중앙 농아 지부의 윌콕스 장로와 켄틀 장로는 오전 6시 30분에 눈을 떴다. 그들은 다른 선교사들처럼 그날의 일과를 잘 수행하기 위해 기도하고 일과표를 점검했다. 이들의 아침 준비 시간 중 특이한 점은 수화를 공부하는 시간이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새로운 어휘를 익히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수화책을 공부했다. 또 토론책과 다른 교회 자료를 통역하는 연습을 하고, 예전에 배웠던 교재를 복습했다. 일반적으로 선교사들은 오전 10시 30분에 숙소를 나서게 되어 있지만, 이날은 멀리 있는 회원을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오전 9시에 숙소에서 출발했다.

이날 방문한 회원은 원자력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재호 형제였다. 이재호 형제는 얼마전 다리 절단 수술을 했고, 이날은 실밥을 제거하기로 한 날이었다. 이 병원에는 따로 수화 통역자가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윌콕스 장로와 켄틀 장로가 의사의 지시를 통역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이재호 형제의 집

에 방문하여 영원한 가족에 대한 영적인 메시지를 나누고 숙소로 돌아왔다.

그들은 숙소에서 회원들에게 주려고 만든 바나나 빵과 저녁에 쓸 교재를 가지고 약속 장소인 이태원으로 향했다. 농아 지부 회원들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약속 장소까지 가는 데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린다. 선교사들은 대부분 전철을 타고 이동하는데, 덕분에 서울의 지하철 노선에 아주 익숙해지게 되었다. 실제로 이들은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전철 안에서 보내기 때문에 이동하는 시간은 수화 공부를 하는 데 아주 유용하다고 한다. 우선 조금 전에 만났던 회원들과 대화하면서 익힌 새로운 단어를 동반자끼리 가르쳐 주고 이것을 연습한다. 아침마다 부지런히 수화책을 펴고 공부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회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배우게 되는 단어가 많으며 또 훨씬 쓸모가 있다.

그들은 전철에서 내려 지난 10월에 침례 받은 이경수 형제를 만나 새로운 회원을 위한 토론을 복습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에서 맨 처음 침례 받은 청각 장애인 윤영구 형제가 함께 했는데, 이러한 회원들의 도움으로 현재 이경수 형제는 교회에서 매우 활동적이며, 매주 성찬을 전달하고 있다.

윌콕스 장로와 켄틀 장로는 토론을 마친 후 7시 30분에 있는 수화반에 늦지 않으려고 바로 출발했다. 매주 화요일 저녁에 열리는

중앙 농아 지부의 켄틀 장로와 윌콕스 장로



일반인을 위한 수화 교실에는 10여 명의 학생이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운영되는 이 수화반에, 그들은 더 많은 반원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있다.

수화반이 끝난 후 그들은 숙소로 돌아가 회원들에게 팩스를 보내고, 다음날 일정을 점검했다. 잠자기 전에 두 사람은 수화로 기도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농아 지부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신 축복에 감사드리고, 그 날 만날 수 있었던 훌륭한 사람들에게 감사 기도를 드렸다.

간소한 성찬식

12월 9일, 인천 농아 지부의 블랙 장로와 웰스 장로는 아침 일찍 눈을 떴다. 이 날은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평일과는 다른 일상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인천 농아 지부에는 약 13~17명의 활동적인 회원들이 매주 안식일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인천과 경기도 곳곳에 흩어져 사는 이들은 아침 일찍 교회에 오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웰스 장로와 블랙 장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회원들을 돕고 있다. 이들은 전화를 하기도 하고 일찍 온 회원과 함께 아직 오지 않은 회원을 데리러 가기도 한다.

오전 11시부터 신권회와 상호부조회가 열렸다. 보통 상호부조회를 할 만큼 자매가 많지 않아서 합반으로 진행된다. 다음은 주일학교 시간이다. 선교사들은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일학교 공과를 맡는다. 우선 주일학교 시작 전에 모두 함께 물문경을 읽고, 다음에 공과를 가르친다.

오후 1시부터는 성찬식이 있다. 모인 사람들은 의자를 간단히 둘러고 둘러 앉아서 성찬 테이블과 연단을 만들기 위해 분리벽을 열었다. 모임은 아주 간소했다. 선교사들을 포함한 모든 회원들에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말씀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 웰스 장로와 블랙 장로는 수화를 모르는 다른 정상인들에게 농아 회원들의 말씀을 음성

통역해 주었다. 음성 통역이란 청각 장애인의 수화를 말로 통역하는 일인데, 말을 수화로 표현하는 것보다 어렵다.

안식일 모임이 다 끝난 뒤에는 회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이 시간은 멀리 떨어져 사는 회원들끼리 서로를 알고 친해질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다.

“내 인생 최고의 경험”

농아 지부의 선교사들은 다른 선교사들과는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 수화를 배운다는 것은 분명 어렵고 힘든 일이다. 그러나 중앙 농아 지부의 켄틀 장로는 이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경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농아 지부에서 봉사하는 것은 저의 생애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경험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국어 외에 또 다른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주님의 힘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인천 농아 지부의 블랙 장로는 “저는 농아 지부에서 봉사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것은 아주 특별한 기회입니다. 이 지부는 아주 작기 때문에 회원들과 가까워지기 쉽습니다. 친해질수록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회원 각자에 대해 생각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하고 말한다.

중앙 농아 지부의 윌콕스 장로 또한 회원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간증한다.

“저는 더욱 겸손해지는 법과, 행복하게 사는 법과, 제가 받은 축복을 세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농아 지부에서 선교 사업을 하면서, 이들은 다른 곳에서 봉사하는 자신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농아 지부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간증했다. 그들은 주님의 메시지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커다란 축복에 감사하고 있다.

간증

템플 스퀘어에서 온 편지

안선미 자매(유타 주 템플 스퀘어 선교부)

저는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안선미 자매입니다. 이 선교부는 180명의 자매 선교사들과 20쌍의 부부 선교사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특별한 선교부입니다.

사시 사철 끊이지 않고 찾아 오는 관광객들이 이곳 선교사들을 설렘없이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한국 관광객들이 아주 많이 옵니다. 모터코치라고 불리는 단체 관광 버스로 오는 손님들을 안내하는 투어가 아주 많이 진행되는데 가장 많이 온 날은 하루에

여덟 대가 온 적도 있습니다.

지난 여름의 추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단체 관광객들이 올 때마다 열 명 정도 되는 모든 한국 자매들이 집합해서 한국 손님들을 맞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물론교라고 알고 있고 물론하면 일부다처제밖에 모른다는 분들이 대부분인 우리 나라 손님들을 맞을 때마다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두 분의 자매가 앞에서 이해하기 쉽게 마이크를 들고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간증을 하면 이동하는 동안에 중간 중간에 있는 자매들이 보충 설명을 하고 질문에 대답해 주고 또 간증을 합니다.

지난 여름에 만났던 한 부부는 제가 다니던 지부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분들은 종교를 갖고 계시지 않았으며 교회에 익숙치 않은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산에서 왔고 같은 동네 출신이라는 것을 아시고는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 분들이 교회에 관심을 보이고 물론경을 신청하셨을 때 아주 기뻐고, 하루 빨리 선교사들이 방문해서 그 분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기대에 잠을 설쳤습니다. 또 부산에서 오신 어떤 아주머니는 “한국에서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교회 너무 좋다, 너무 좋아. 한국에 가면 찾아볼게요.” 하고 가셨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통해 교회에 대해서 알고 가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고 한국 인구의 몇 퍼센트쯤 될까 계산해 보며 한국 자매들과 가슴 뻐뚱해 하고 기쁨을 느끼던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곳에서 봉사하면서 비록 침례 받는 모습을 많이 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기쁨도 많습니

다. 미국 다른 지역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한국인 장로님이 보내주신 편지들은 저에게 많은 용기와 의욕을 주었습니다. 뉴저지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조흥영 장로님은 다음과 같이 쓰셨습니다. “한 달 전에 선교부 사무실에서 솔트레이크시티를 방문했던 한국인 주소와 전화 번호를 받아서 그 분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안내를 받았던 한국 자매 선교사들이 너무 평안해 보이고 아름다워서 우리 교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롱비치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노동일 장로님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요즘 저는 템플 스퀘어 자매 선교사들의 봉사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느낍니다. 바로 며칠 전에 저희 아파트 옆에 사는 한국인 아저씨가 동료 선교사와 이야기하고 있길래 제가 다가가서 인사했더니 제가 한국인 선교사라는 사실에 깜짝 놀라셨으며 교회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 또한 바로 한 달 전쯤에 가족과 함께 템플 스퀘어를 방문하셨는데 그 곳에서 자매님들이 안내를 아주 잘 해주셨다며 우리 교회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편지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표시가 나지 않더라도 우

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모든 방문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일인지 알게 되었고 더 힘을 얻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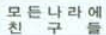
초기 성도들이 이러한 성전, 태버나클, 갈매기 기념상에 대한 역사적인 설명과 함께

결들여진 영원한 가족, 살아 계신 예언자, 기도의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간증은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성신의 능력으로 인해 스며들게 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이 사업이 하나님

이 주관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주 전쯤 솔트레이크시티에 이사온 지 네 달 쯤 된 마크 스위니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투어를 할 당시 그는 귀걸이를 양쪽에 하고 있었으며 몸집이 컸고 허리가 아파서 앉으면 일어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30대 후반의 독신 남자인 마크는 몇 주 후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마크의 침례식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크는 이렇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자매님들의 영향이 정말 컸어요. 여러분의 따뜻한 미소와 관심 어린 사랑이 제가 개종한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템플 스퀘어의 모든 자매들의 땀방울이 모인 결과가 바로 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크는 앞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결심에 마음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선교 사업을 나오기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많은 성공과 축복에 한없는 감사를 느낍니다. 무엇보다 큰 축복은 제 자신의 신앙이 많이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녔지만 제 자신의 간증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많았고 선교 사업 초기에는 그 문제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 물론경이 참되다는 것을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받았고 이 책이 성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되었으며 살아 계신 예언자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지상의 유일한 참된 교회의 선교사로서의 자부심과 봉사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를 느끼며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2002 동계 올림픽,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드디어 개막



모든 나라에
친근

오는 2월 8일부터 24일까지 17일 동안 제19회 동계 올림픽이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개최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쇼트트랙 부문에서 금메달을 예상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이 동계 올림픽에 모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회에서는 동계 올림픽 취재 언론인들을 위한 안내 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하고 언론인들의 취재 일정을 지원하는 등, 세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될 이 동계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수많은 교회 회원들이 자원 봉사자로 봉사할 예정이다.

김미미 자매 미스 샌피에 입상



김미미 자매는 지난 5월 18일 유타 주 맨타이에서 열린 고등학생 미인 선발 대회에서 2위로 입상했다. 그리고 8월 25일 샌피(Sanpete) 미인 선발 대회에서도 2위로 입상했다. 각 도시를 대표하여 선발하는 샌피 미인 선발 대회에는 평점 A학점 이상의 학생들만 출전할 수 있으며, 미모뿐 아니라 지성과 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겨루게 된다. 맨타이 고등학교 4학년여 재학생인 김 자매는 여기서 입상하여 대학 진학 장학금을 받았으며, 현재 이 학교 학생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인천 스테이크 김영석 형제와 임승란 자매의 셋째 딸인 김 자매는 유타 주 맨타이 이프라임 스테이크 제3와 드에서 활동 중이다.

지역 주민에게 봉사하는 여운성 형제

서울 동 스테이크 장위 와드 여운성 형제가 이웃의 고장난 물건

을 무료로 수리해 주어 성북구 신문에 소개되었다. 서울시 성북구 길음3동에 살고 있는 여운성 형제는 지난 97년부터 지금까지 주민들이 가지고 온 고장난 텔레비전, 냉장고, 컴퓨터 같은 가전 제품 250여 대를 무료로 수리해 주었다. 공대 출신인 그는 솜씨가 뛰어나 할 뿐만 아니라 이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웃들 사이에 **만능 손**으로 불리는 등 신망을 받고 있다.

전국 지역 소식

지난해 10월 27일 마산 스테이크 여성 대회가 열렸다. 자매들의 경전 지식을 묻기 위해 교리와 성약에서 문제를 출제하여 퀴즈 대회를 가졌으며, 총 7팀이 출전한 가운데 지부 연합팀이 우승했다.

서울 영등 스테이크는 지난해 11월 3~4일 양일에 걸쳐서 감독, 지부장, 고등 평의원 부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2002년도 스테이크 운영 계획을 협의하고, 역원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며 목표 의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개최된 이 세미나에는 30여 명의 역원 부부가 참석하였다.

지난해 11월 24일 광주 스테이크에서는 가족이라는 주제로 청녀 창립을 기념하는 축제가 열렸다. 모임을 마친 뒤 한 청녀는 “학교 친구 두 명을 데리고 왔는데 좋은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함께 오기를 잘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교회에 속한 것과 청녀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워요.”라고 말했다.

같은 날 부산 스테이크에서는 여섯 가지 청녀 모토를 주제로 연극, 중창, 오락, 요술 풍선 만들기 등의 다양한 발표가 있었다. 스테이크의 청녀 고문이 모여 바이올린, 클라리넷, 호른, 피아노, 플루트를 연주하면서 “난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 청녀 창립 기념일을 축하했다.

또 연말 연시를 맞아 음악회와 예술제가 여러 곳에서 개최되었다. 지난해 11월 10일 서울 강서 스테이크는 스테이크 합창제를 가졌다. 8개의 와드 지부가 지정곡으로 “전지 전능하신 주님께”와 “친절한 말들을 서로 하세”를 부르고, 자유곡 한 곡씩을 발표했다.

한편 서울 동 스테이크는 지난해 11월 24일 의정부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음악제를 개최했다. 기타 듀엣과 현악 3중주, 피아노 독주, 플루트 연주 등의 순서가 마련되었으며 소프라노 유정미 자매와 상계 와드 모로나이 합창단의 공연이 있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일 제3회 부산 스테이

★ 우리 이웃

못쓰는 물건을 말짱하게! 마늘 손, '여유성'씨

생활이 급박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여유로워지는 "프러기"와의 친밀 때문에 진저리를 내는 사람들이 가운데, 동해 쓰러짐이나 배를 수습하며 뒤처 버려진 물건들을 찾아내는 여가 있다.

민은 손재주꾼! 여운복씨(48
년생), 이름은 몰라도 그의 얼굴
은 이미 각종 매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뛰어난 손재
주꾼. 낚고자, 고추난 물려버리
게, 벗고자 심자하는 다 부수지
우산조차도 그의 손에 닿기만
하면, 고스란히 새장만, 돌리
면 언니와 저를 몰고 가는 것까
지도 관심에 있는 그에게 물어
보. 마음이 바로 맞는 재주꾼이
진

는 일을 하면서 취미삼아
는 물론이고 고치는 데 인
는 고치는 말 못하니까
새 편의 사업 실패와 사
다나스고, 현재까지 찾아
를, 인간에게 세 번의 기
있다는 모든 기회를 잃
고 있다. 그는 미치광이
를 몰아내고 고치기 못
어릴 때도 있었다. 그러나 대
를 만들어 의뢰를 받게
고 사업을 의뢰를 해야
의뢰에 속한다고 한다. 그 후로
는 찾아오는 이웃에게 마
고 이웃들 누구보다도
기게 만지기를 좋아했던 그는
환자를 좋아하고 사후엔 말기
환자를 고치기 무서워했다. 이웃

자침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성에 대한 것 없이도 성에 대해서도 KIST에서 찾아다니며 복학으로 편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는 지리학과 수학을 고집한다. 하지만 간단한 이웃의 어른들과 함께 돈을 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 이 두 가지가 그의 특징이다.

찰수록 기계가 디지털화 되고
오래된 구형은 부속물이 없어져
고치지 못하게 되는 현실이 안
타나지 않나.

세 것만 현오라는 사람들이
배리는 물건들 주위 50 살중이
게 고쳐 필요한 사람에게 나
여주는 일이 급지를 느낀다

가게 고치는 한 편파이 아니
 각 용이 어한장수 공상을 갖기
 시키한 한방장수들 중에 3명이
 나오는 공방으로 공방을 여방한
 는 방방을 만들어 자금까지 1,
 000여 명이 어한 부당이 이용하
 였다. 소문이 나면서 찾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다
 자들이 부끄럼 나리에서는 자
 여운까지,
 "마라 해진 사람이 맞았어 공
 언다"는 부인과 1남 1녀, 아도
 도 이들을 걱정해 주시는 어머
 는 며칠을, 어 모는 소문만 거대
 이 있거게, 목욕이 없이 나
 어주는 기쁨으로 산다.



새 것만 선호하는 사람들이
배리는 물건을 주워 모아 팔아서
게 고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일에 긍지를 느낀다는

어느날,
"여러 해전 사람이 멋있어 보
인다"는 부인과 1남 1녀, 아드
도 아들을 걱정해 주시는 어머
니. 그리고 그의 손길을 기다리
는 아들을, 이 모든 소중한 사람
이 있기에, 육성이 없이 나는
어주는 기쁨으로 산다.

유정미 자매의
연신 외연이다.

그리고 지

와 상계 와드 모로

간해 12월 1일 제

이 합창단의 공

3회 부산 스테이

(임재기(차) 이인순)



왼쪽: 서울 영등 스테이크 감독, 지부장, 고등 평의원 부부 초청 세미나, 오른쪽: 서울 강서 스테이크 합창제



크 예술제가 열렸다. 초등학교부터 상호부조회까지 다양한 회원층이 참여하여 기악 연주를 하고, 가곡과 중창 발표를 했다. 특히 한종완 형제가 연출하고 온천 와드와 금정 와드 회원들이 출연한 연극 "파이오니어"는 마틴 손수레 부대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엮어 낸 작품으로 참석자들로부터 기립 박수를 받았으며 구도자에게 교회를 소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또 수원 스테이크에서는 지난해 12월 29일 수원 연무 사회 복지관이 주최하는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사랑의 음악회"를 후원했다. 이번 후원은 지역 사회에 교회를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하였으며, 수원 스테이크에서 봉사하는 전임 선교사 프론크 장로가 공연에 출연하여 관객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다.

종교 교육원 소식



지난해 12월 24일, 지금까지 박병규 형제의 수업을 들었던 재학생과 졸업생 200여 명은 서울 동종교 교육원에 모여 그의 마지막 수업을 들었다. 이 강의는 지난 30년간 종교 교육원에 재직한 박병규 형제의 퇴임 기념으로 마련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박병규 형제는 "요셉 스미스의 신앙 강

좌"를 강의했다. 박병규 형제는 1973년부터 종교 교육원에서 근무했고, 1986년에 교회 교육 기구 대표로 부름 받아 일하다가 2001년 12월 31일 퇴임했다. 한편 교회 교육 기구의 새로운 대표로는 민혜기 형제가 부름 받았다. 민혜기 형제는 1976년부터 종교 교육원에 재직했으며 1998년부터 2001년까지 3

년간 서울 서 선교부장으로 봉사했다.

또한 서울 동종교 교육원에서 2년 동안 봉사한 텔포드 부부 선교사가 지난해 12월 3일 귀환했다. 텔포드 부부는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3개의 영어 회화반을 운영했는데, 이들의 귀환을 아쉬워하며 지난해 11월 30일 60여 명의 학생들이 송별 모임을 했다.

토론토 돈 밸리 와드 한국반 소식지

"토론토 성도의 빛" 발행

캐나다 토론토의 한인 회원들은 작년 5월부터 "토론토 성도의 빛"이라는 이름의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다. 이 소식지는 북미 곳곳의 한인 회원들에게 전달되어 우리말로 간증을 나누고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소식지에 도움이 될만한 제언이나 의견, 또는 여기에 싣고 싶은 간증이 있으면 토론토 돈 밸리 와드의 한국반 반장인 장성하 형제(simon-jsh@hotmail.com)에게 보내면 된다. 토론토에는 현재 약 60여 명 가량의 한인 회원들이 있으며, 한국인 구도자를 위한 한국인 선교사가 얼마 전에 파견되었다.

뉴질랜드의 한인 성도 모임

1990년대 초부터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한국인 말일성도는 어느덧 10여 가정 60여 명에 이른다. 아직은 한인 지부가 설립되지 않았지만, 가장 많은 한인 성도들이 모여 있는 오클랜드 하버 스테이크 이스트 코스트 베이즈 와드에서는 지난 해 11월부터 한국어로 주일학교 모임을 갖고 있다. 또한 12월부터는 격월로 한인 성도들이 모여 간증 모임을 갖고 있고, 공휴일에는 모두 모여 함께 준비한 식사를 나누며 활동 모임을 갖고 있다.



왼쪽: 지난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모임을 가진 뉴질랜드의 한인 성도들, 오른쪽: 온누리 합창단 크리스마스 정기 공연 모습



온누리 합창단 크리스마스 정기 공연 및 김호직 박사 추모 음악회

지난해 12월 25일 온누리 합창단 크리스마스 정기 공연 및 김호직 박사 추모 음악회가 서초동에 있는 한전 이트홀에서 열렸다. 이날 공연의 지휘는 강시영 형제와 류상길 형제가 맡았으며, 170여 명의 단원이 참여했다. 또 이 공연에는 온누리 합창단 외에도 바리톤 최현수 형제, 테너 김신환 형제, 오르간 김정애 자매, 첼리스트 도부민 형제 등이 출연했다.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247기 3명/제248기 5명/해외 2명



김봉민
마산 스테이크
마산 와드
서울 선교부



박현수
서울 강서 스테이크
개봉 와드
대전 선교부



한동훈
제주 지방부
서귀포 지부
서울 선교부



하태광
서울 강서 스테이크
신월 와드
대전 선교부



박경진
서울 스테이크
화양 와드
부산 선교부



김주미
마산 스테이크
진주 와드
대전 선교부



정현진
마산 스테이크
마산 와드
일본 샌다이 선교부



김두리
대구 스테이크
경주 지부
대전 선교부



박미양
대구 스테이크
안동 지부
유타 주
템플 스쿼어 선교부



송원준
영동 스테이크
오릉 와드
솔트레이크시티
선교부

역원 변경

강릉 지방부

동해 지부장: 인진교(전임자: 이호인)

대구 스테이크

안동 지부장: 남상일(전임자: 스티븐 리데)

마산 스테이크

남해 지부장: 이진만(전임자: 김태신)

삼천포 지부장: 강지훈(전임자: 이호범)

서울 서 스테이크

서울대 와드 감독: 김민서(전임자: 윤여창)

정정

2001년 12월호 지역 소식 역원 변경란의 부산 스테이크 온천 와드 감독을 현임 "정원몽", 전임 "정창"으로 정정합니다.

원고 모집

10년 이상 또는 3회 이상 감독 또는 지부장으로 봉사하신 분들의 간증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고귀한 간증을 리아호나 담당자 앞으로 2월 20일까지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아호나 담당자 조현석 형제

주소: 서울시 성동 우체국 사서함 22호 (우: 133-600)

전화번호: 02) 2232-1441(교 550) 이 메일: (Chohs@dschurch.org)